

一일본사학가의 토론문

무라 가즈아키

원문 일본어, 번역: 안 영희

-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하게 연구를 한 적은 없으므로 평소에 보고 들은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및 문제는 전체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아래부터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한국과 다를 수 있음) 몇몇 문제와 논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는 많으며, 이 주제는 평소에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집단적인 논의와 활동은 한정적이다(지역의 사료 조사, 합동 연구 등은 수십년간 시도하고 있다).
 - ‘역사학’ 및 ‘역사학의 전문가 집단’에게 국가 및 사회에 요구되는 ‘역사’ (하위문화 포함)를 더하여 생각하면, 일본에서의 ‘역사학’은 대학의 전문가 집단이 주로 맡고 있고, 고등학교 교사나 아마추어 향토사가들도 함께 하고 있었으나 전자는 고립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후자는 격감하고 있다. 일본에서 역사학·전문가 집단이 ‘역사’를 독점했던 시기는 없었다.
 - ‘역사’ 인플루언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 연구자(자칭 포함) 또는 저널리스트가 많다. 역사학의 전문가 출신은 극소수이며 다른 전문가들의 시선은 엄격한 편이다. 최근 2세기 동안 스토리성이 있는 역사서를 쓰는 작가(라이산요, 요시가와 에이지, 시바 료타로 등)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나 최근에는 줄었다.
 - 인기 있는 ‘역사’ 콘텐츠는 ‘애국적’ (정치적인 선악이원론)인 것 외에 영웅주의적, 입지전적(성공의 비결을 말함), 감상적, 정서적, 잡학적이거나 쿵트(풍자적인 짧은 에피소드)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대중문화(연극, 소설, 영화, TV 드라마 등)의 수세기에 걸친 전통과 합쳐졌고, 그 일부가 최근 ‘유사과학’적인 외형을 갖추기 시작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영역구분이 애매해지고 있다.
 - 성장 중인 콘텐츠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숏폼 콘텐츠,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피로감, 불안감, 불만 등이 배경에 있을 듯 하다.
 - 문학 뿐만 아니라 교육학, 경제학, 법학, 농학 등 다양한 학과가 전문가 집단의 일부(일자리, 연구자 양성)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런 부분은 현재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심각한 편이다.
 - 정보의 디지털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역사관련 사료와 연구서의 디지털화는

크게 뒤쳐져있다.

- 책의 두께가 얇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서’ 또는 ‘선집’ 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널리 읽히는 문화는 수십 년의 전통이 되었으며 최근에 다시 활성화되고 있어 현실적인 희망이라 할 수 있다.

■ 논의 사항 및 주안점

- 역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그 중에서 역사학에 두드러지는 점을 각각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역사학을 넘어서)지식 체계가 격변하고 있으며 학문 및 전문가의 권위가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연구 외의 목적을 가진 ‘유사과학’ 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등에 업은 국립대학 혹은 사립대학 및 대형 출판사 등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 의 권위는 거의 무너졌으며, 일부에서는 적대시되고 있기도 하다(반엘리트주의).
- (역사학에서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세상의 이해를 돕고, 누구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이지 않은 설명도 널리 존재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다(판단기준은 내용보다 형식인가?). 역사학은 정치적 경제적인 활동으로의 이용가치가 높고, 일반인은 그 영향을 받기 쉽다.

■ 이러한 문제를 가급적 역사학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문적인 연구와는 별개의 활동’ 이 아닌 것으로 고려하고, 이 문제를 생각함으로써 역사학 자체를 발전, 심화시키고자 한다.

- (가령 이론 및 방법으로) 역사학이 종이에 인쇄된 논문 및 서적, 폐쇄적인 구두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계몽, 보급적인 발언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것이 역사학에게 주는 장단점 분석. 향후 방향성의 모색(공동체 서바이벌 뿐 아니라).
- (가령 연구대상으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시스템, 어떤 설명이 권위를 갖고 영향력을 가지는 시스템, 전문가 집단, 전문적 지식과 국가, 사회의 관계, 사회의 분단 및 통합의 바람직한 방식 등을 둘러싼 연구의 심화. 시점 쇄신.

■ 역사학, 그 전문가 집단이 변해야 할 점을 생각함으로써 변해서는 안 되는 점도 의식하고자 한다. 서바이벌(지식, 기술, 윤리, 역사자료)과 학문적인 공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얼핏 보기에 재미없는 사실의 해명 및 축적을 고집하는 것,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 정보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 결론과 평가를 서둘지 않는 것, 근거가 되는 정보의 보존에 힘쓰는 것 등의 가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기반으로서

어떻게 학문 및 공동체를 존속시킬 것인가.

- 변화방식의 모색은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라는 전망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대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보를 둘러싼 질서 및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플랫폼기업의 동향, 인공지능의 발달 및 보급, 국가가 민의를 조달하는 방법의 변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